

[ 종합 ]

# “광주 세하 택지개발 백지화하라”

## 개발계획 도면 유출 투기 등 부작용 경실련 성명...사업 강행시 감사청구

개발계획을 담은 도면이 유출되면 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는 광주시 서구 세하동 택지지구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세하지구 경우 정보 누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수 배 이상 급등한 물론 보상을 노린 건물 신축과 나무 심기가 극성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계획대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 이익을 투기꾼들에게 몰아주고 그 피해

이나 공신력은 한번 시작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데서 유지를 할 수 있다”면서 “개발계획 철회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투기꾼들이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기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에 달하는 시점에서 개발계획이 알려진 사업들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는 일단 세하지구 일대를 건축허가 규제 구역으로 고시하는 한편, 다음 주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고시, 모든 투기 행위와 거래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일단 오는 3월까지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지만 반드시 택지개발

로만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세하지구를 문화중심도시 법정 계획 수립 이후 문화복합단지나 문화산업과 관련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국세청은 18일 세하지구에 대한 조사가 나섰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서구 관할인 서광주세무서와 함께 전매행위나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입으로 인한 외지인 진입 여부 및 부동산가격 부추기기 등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서부경찰도 지난 17일 개발지구 도면 유출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광주시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이순신 사업’ 중복투자 피한다

## 전남도·경남도 추진사업 문광부서 조정

전남도와 경남도가 제각각 추진해 오던 이순신 장군 및 임진왜란 관련 관광상품화 사업이 문화관광부의 조정으로 중복투자를 피하고 단독 추진 사업도 협의를 거쳐지게 된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18일 이순신 관

련 사업에 대한 양 도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예산지원을 문광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결과 공동추진 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순신 및 임진왜란 알리기 사업과 거북선·관옥선·안력

선 등 8억 원형복원사업(170억원)을 내놓았고, 경남도는 ‘거북선을 찾아라’와 사비바 임진왜란, 임진란 뮤지컬 등 3건(77억원 소요)을 제시했다.

단독추진사업으로는 전남도는 범량대첩 현충사업과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2건을, 경남도는 이순신 장군 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순신 및 임진왜란 알리기 사업과 거북선·관옥선·안력

양 도는 내달초 2차 회의를 갖고 공동사업과 단독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양 도지사가 서명한 국비지원 건의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으며 공동추진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광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에서 열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콘서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전남도와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협의하지 않고 단독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탈북 국군포로 가족 9명, 보호소홀로 복송

## 중선양 총영사관 일선 중국어 민박집 머물다 공안에 모두 붙잡혀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납북어부 최육일 씨를 막대한 일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영사관이 ‘관리’하던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복송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군포로 3명의 북한 내 가족 9명은 지난 해 10월 탈북해 주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에게 인도됐으나 총영사관에 진입하기 전에 영사관측이 알선한 민박집에 투숙하던 중 공안 당국에 체포돼 복송 처리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납북자·국군포로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이 탈북했을 경우 그들의 신분은 엄밀히 말해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한 북한 국적자이기 때문에 총영사관이 나서서 이들을 공판 안으로 데려올 경우 외교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

탈북자와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18일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탈북자 지위를 허다 4년동안 중국 감옥에 수감됐던 최형욱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몸을 빚돌로 묶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의 설명이다.

복송된 국군포로 가족이 민박집에 임시 체류했던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군포로 가족 9명이 공안에 체포된 민박집은 과거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의 임시 거처로 이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갑자기 실시된 비상검문 과정에서 국군포로 가족의 탈북 사실이 들뜬 뒤 일사천리로 복송 과정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의 경우 비록 국군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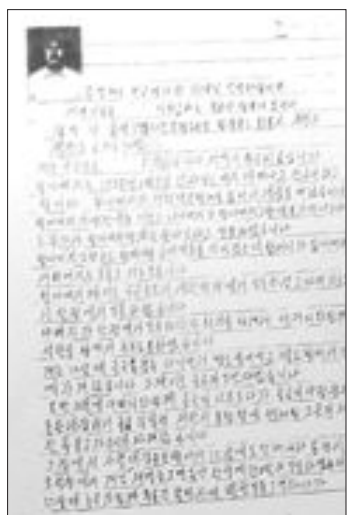
가족이 공안에 체포된 지 하루만에 복송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손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전혀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대대적인 여론이다.

외교부는 송민순 장관의 방중 기간(25-27일)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저의 살 길은 할아버지의 고향밖에 없습니다”

## 전남출신 국군포로 손자 영사관에 절박한 편지



“저의 살 길은 할아버지의 고향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주 선양(瀋陽)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 강제 복송된 국군포로 가족이 같은 해 7월18일 영사관에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18일 납북자가족모임을 통해 입수한 이 편지에서 L(23)씨는 자신을 “국군포로 000씨의 장손”이자 “북조선 탈북자”라고 소개한 뒤 남한에 가서 형제를 찾으려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 드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한국행을 부탁했다.

L씨는 또 “(탈북 후) 북조선(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이번에 잡히

이 편지에 따르면 그의 할아버지는 1928년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국군포로로 함경북도의 한 탄광에서 일하다 1996년 사망했다. 아버지 역시 탄광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자신과 어머니가 석탄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L씨는 14살부터 북.중 국경을 오가며 식량을 구했으며 8번째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 넘어왔을 때 현지 ‘사람 장사꾼’에 붙잡혀 한쪽을 당했다. 1년 뒤 이곳에서 도망치거나 L씨는 3년 간 막노동을 하며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복송, 1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다시 탈북해 중국에서 돈을 벌며 살았으며 더 이상 탈북자 신분으로 생활할 수 없어 한국 입국을 결심했다며 거듭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망해도 좋다는데 어찌죠?!

## 박근혜 전대표에 흉기 휘두른 지중호씨 징역 10년 선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중호씨에게 함소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18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지씨의 함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당 대표에게 상해를 입혀 선거 운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고 범행 시기와 대상,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상림씨 징역 7년 선고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사기·공갈·입선수재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로카' 윤상림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공범 이모(48·구속)씨와 함께 2003년 5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뇌리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2억3천 8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www.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신문광고: 062-222-9600 FAX: 227-9600

신문: 062-222-9600

**본 신**

골프회원증 No. J0811-0122 콜드레이크C.C 인병진 삼기 회원증을 분실공고함.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연961 면책 (2005하단985) 파산선고 파산자 김공주(740402-\*) 주소 광주 북구 임동 101-5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1월 17일

**분묘개장공고(2차)**

중앙대(1898) 제2차 및 중앙대(1917) 제3차 유골이 있는 분묘 또는 유골이 없어 분묘가 없는 분묘에 대해 2차 개장을 실시한다. 2007년 1월 19일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연961 면책 (2005하단985) 파산선고 파산자 김공주(740402-\*) 주소 광주 북구 임동 101-5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1월 17일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연1035 면책 (2005하단1003) 파산선고 파산자 최정선(711010-\*) 주소 광양시 태인동 1500-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1월 17일

**변호사 개업인사**

제 구회승은 이번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단독판사를 맡고 있으므로 경전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연943 면책 (2005하단937) 파산선고 파산자 주구(520925-\*) 주소 여수시 중흥동 553-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1월 17일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연1057 면책 (2005하단1019) 파산선고 파산자 김충원(591123-\*) 주소 광주 서구 대평동 1168-11 상주대우아파트102동15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1월 17일

**변호사 구 회 승 올림**

■ 업무개시: 2007. 1. 11. (목)  
■ 개업장소: 순천시 조례동 724번지 (법원상가리 GS주유소 건너편)  
■ 대표전화: (061)722-5050 팩스: (061)722-4747  
■ 개업시간: 2007. 1. 24. (수) 16:00부터

**인터넷 가입시 무료증정!**

L 파워콤 하나로통신 메가박스 ADSL VDSL 인터넷 서비스

월 24,750원 (모바일·AT 별도, 3년) 월 24,900원 (VAT 별도, 3년) 월 25,200원 (모바일·AT 별도, 3년)

**컴퓨터 무료** 펜, 모니터, 소모품 포함

삼성 50인치 대	17' LCD 모니터	MP3 플레이어	1200ml 대	로봇청소기	리프트수레
삼성 21' 원천형 TV	네비게이션	쿠쿠밥솥	싱키세척기	GPS	플러피터
블랙 MP3	MP3	환경형 스팀청소기	무선전력기	양방향 핸드폰	유문시공유기
삼성 IP 북기	미니컴퓨터	책상·책꽂이	전자민지	2인 자전거	원목 디젤 피노

**광주전남 가입센터(代) 1600-7234**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시험: 4월 4일(접수기간 1/19~1/23), 광주, 전남, 서울, 경기도 사범대

<b>7·9급 일반행정직</b> 김영우 행정부 노광준 노광현 대표교수팀 특별강의	<b>사회복지직</b> 김형준 교수팀 특별강의
<b>9급 교정직</b> 형소 김길 임정화 김보현 노광현 특별강의	<b>소방직</b> 오형문 소방학 대표교수팀 특별강의
<b>7·9급 교육행정직</b> 영아·전상호 교사·정영우 교수팀 특별강의	<b>공인중개사</b> 김성권 최병현 정원석 김보현 최진영 양영희 교수진

**-광주·전남 수강생 만족도 가장 높은 학원-**

**광주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 상담전화: (062)226-5050 ■ 위치: 전남여고 후문 맞은편